

모양극원마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2026 국립무용단

몽유도원무

Mongyudowonmoo

2026.6.12.(금)~6.14.(일)

금 19:30 토·일 15:00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안무·연출 차진엽

프로그램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무용단 소유로,
재사용(개인 SNS 및 웹사이트 등)이 불가합니다.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정연복의 시(詩) <계절의 여왕>에
'그대를 계절의 여왕으로 만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연꽃빛 앞'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한결같은 초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며,
영국 호폐쉬 섹터 무용단과 네덜란드 갈릴리 무용단 등
세계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했던 차진엽 안무가의 <몽유도원무>는
2022년 초연과 2024년 재연을 거쳐 올해 세 번째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국립극장에 선정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속초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국립무용단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정착하여 팬덤까지 형성한 뛰어난 작품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며 한국 창작춤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제시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준 안무가와 무용수
그리고 기획팀과 주요 제작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최고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이번 무대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굽이굽이
나의 유년기 속
현묘하게 아름다운 작은 존재들

굽이치는 험준한 길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다
문득 멈추어 둘러보니

새싹도, 꽃도, 벌레도, 새도
바람을 맞이하고
햇볕을 맞이하고
피어오르고 흐르고
부족함이 없음을

낙엽은 땅에 떨어져
다음 봄에 태어날 싹의 이불이 되어주고,
바람은 바다를 흔들고,
바다는 다시 구름을 불러오고,
꽃이 피고, 벌레가 깨어나고, 씨앗이 퍼지며
생명들은 서로 얽히고 흐르며 살아간다.

멀리서 바라본 산세는 장엄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삶은 고단한 여정이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안에서만
비로소 발견되는 작은 생명들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의 움직임이 있다.

내가 디디고 있는
이곳, 이 자리, 지금.
홀로이면서도 함께
우리는 같은 숨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걷고 걷는다.

이 작품은 현실과 꿈, 인간과 자연, 거시와 미시, 삶의 고단함과 아름다움이 뒤섞여 공존하는 세계를 몸으로 탐구한다. <몽유도원무>는 안건의 '몽유도원도'에서 시작되었지만, 단순히 이상향을 재현하는 작품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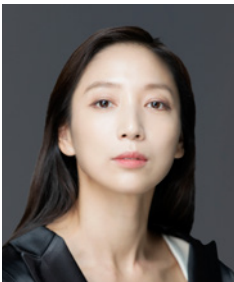
불현듯 '굽이굽이'라는 의태어가 눈앞에 떠올랐다. 이 말 안에는 내가 담고자 하는 현상과 형태, 정서와 태도가 모두 들어 있었다. 굽이치는 산세와 길, 흐르는 시간과 관계, 반복되는 삶의 리듬과 몸의 움직임까지.

멀리서 대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장엄함에 압도된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굴곡진 길을 직접 걸어가려면 현실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럼에도 가까이에서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미시적 존재들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의 움직임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 작품 속 몸들은 단순히 풍경을 재현하지 않는다. 몸 자체가 하나의 산수화가 되어 서로의 숨과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풍류란 단순히 멋과 운치를 즐기는 일이 아니라, 자연과 깊이 교감하며 그 안에서 삶의 리듬과 움직임을 발견하는 태도에 가깝다.

나무는 홀로 자라지 않는다. 바람과 비, 태양과 땅, 자연과 관계 맺으며 자라난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우리의 몸도 삶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흐르고 변화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를 지나며 흐르고 살아간다.

<몽유도원무>는 이상향을 향한 도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다층적으로 바라보며 잊고 있던 감각과 공존의 풍경을 다시 마주하게 한다.



차진엽

안무·연출

현대무용가 차진엽은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영국 런던컨템포러리댄스스쿨(석사)을 졸업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춤평론가상 '작품상', 이사도라 무용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2012년 콜렉티브A를 창단해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몸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며 감각과 존재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안무감독,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폐막식 예술감독 등을 맡았다. 주요 작품으로 <원형하는 몸>, <미인-Body to Body>, <로튼 애플>, <리버런> 등이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운 국립무용단 대표작, 2년 만에 재공연

<몽유도원무>는 장르를 넘나들며 몸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 온 현대무용 안무가 차진엽과 국립무용단이 협업한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며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제시해 왔다. 2022년 초연 당시, 두 편의 작품을 한 무대에 올리는 ‘더블빌’에 포함된 약 40분 분량의 소품으로 선보였으나,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작품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후 2024년 재연에서는 러닝타임을 60분으로 확장하고 조명·음악·의상 등 무대 요소 전반의 완성도를 높이며 작품세계를 더욱 선명하게 구축했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매 공연 90% 이상의 객석점용율을 기록할 만큼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았고,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극장 중심 레퍼토리가 강세였던 국립무용단이 중극장 레퍼토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확장·발전시키며 하나의 검증된 정규 레퍼토리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번 작품은 단순한 전통과 현대의 장르적 결합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적극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립무용단이 지향하는 ‘현재진행형 전통’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한국춤이 지닌 고유의 미학적 보편성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한국춤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춤·음악·미디어아트·의상 등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무대 미학

이번 작품은 무용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작업들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아온 차진엽의 역량이 돋보이는 무대이기도 하다. 작품은 총 2막으로 구성되며 9명의 무용수가 출연한다. 1막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의 여정을 담담한 수목화처럼 표현한다면, 2막은 이상 세계인 도원을 다채로운 채색화처럼 펼쳐낸다. 현실과 이상 세계를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풀어낸 안건의 ‘몽유도원도’ 구성을 무대 위 움직임과 시각적 흐름으로 확장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점차 교차하고 변주되는 과정을 그린다. 1막에서는 무용수들이 무채색 의상에 붓짐을 짊어진 채 비슷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현실 속 고된 삶을 표현한다. 어두운 분위기의 음악과 반복되는 리듬의 ‘앰비언트 사운드(ambient sound)’가 더해져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흐름과 순환을 보여준다. 반면 2막에서는 모든 무용수가 서로 다른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고 무대 위를 수놓는 미디어아트와 어우러지며 분위기를 전환한다. 무용수들은 각자의 호흡과 춤으로 서로 다른 개성과 에너지를 드러내고, 점차 화사하게 변하는 색깔과 움직임은 현실에서 이상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작품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차진엽의 움직임이 시청각 예술과 결합해 완성한 동시대 종합예술의 명작

음악감독으로는 대중음악 프로듀서이자 일렉트로닉 뮤지션으로 활동 중인 하임(Haihm)과 거문고 연주자 심은용이 참여했다.

반복되는 리듬과 전자음, 거문고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은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 속에 현실의 고단한 정서를 함께 담아내며 삶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영상디자이너는 미디어 아티스트 문규철·황선정(oOps.50656)이 맡았다. 두 사람은 자연의 형태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음악과 움직임에 반응하는 영상 작업으로 주목받는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 듀오다. 이번 작품에서는 음악의 흐름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시각 이미지로 구현해 살아 움직이는 수목화 같은 무대를 만들어낸다. 굽이치는 산세와 흐르는 지형, 겹겹이 이어지는 풍경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현실과 이상향이 교차하는 몽유도원의 세계를 펼쳐낸다. 또한 무너졌다 다시 만들어지는 산의 형상과 번져가는 먹의 질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입자 표현 등을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흑백의 수목화 같은 질감에서 시작해 점차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채로 확장되는 장면들은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어우러지며 장엄하면서도 감각적인 무대 경험을 완성한다.

무대디자인을 맡은 이혜진은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로, 굽이치는 물결 모양의 막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생동감을 더하는 애드벌룬, 족자 형태의 무대 장치 등 전통적인 오브제에 동시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 구성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의상디자이너는 몸과 움직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의상디자이너 최인숙이 맡았다. 춤의 움직임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섬세한 의상 디테일을 더해, 안무와 무대가 한 편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풍경을 완성한다.

더욱 깊어진 몸짓과 호흡으로 강렬한 몰입감 선사

<몽유도원무>는 총 9명의 무용수가 각자의 도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춤으로 풀어내는 작품으로 무용수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에너지를 밀도 있게 감상할 수 있다. 무대 위 화폭처럼 드리운 막 사이로 무용수들의 호흡과 몸짓이 겹겹이 쌓이며 살아 움직이는 산수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움직임과 감정은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며 작품만의 강렬한 몰입감을 완성한다. 작품은 차진엽의 감각적인 안무 언어 위에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이 지닌 한국춤 특유의 호흡과 몸짓이 더해져 서로 다른 춤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차진엽은 초연부터 무용수들과 깊은 대화와 교감을 바탕으로 창작을 이어왔다. 정해진 안무를 단순히 반복하기보다 무용수 각자의 경험과 감정, 삶에서 얻은 영감이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업했다. 이를 통해 무용수들은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춤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작품에 진정성을 더했다. 9명의 무용수에게 '움직임 리서치' 라는 크레딧을 붙인 것 역시 이와 같은 창작 과정과 협업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초연과 재연을 함께한 무용수들은 세 번째 공연을 앞두고 더욱 깊어진 호흡과 움직임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Flow I 굽이굽이



01 《몸물결》

몸과 몸, 숨과 숨이 서로 얽히며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몸들은 살아 움직이는 산세처럼 굽이치고 일렁이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된다. 서로 기대고 흔들리며, 서로가 서로에 의해 움직인다. 그 흐름 속에서 몸은 길이 되고, 걷는 몸이 된다.



02 《몸, 통과하다》

몸은 시간을 통과한다. 삶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반복되는 걸음과 굽이치는 움직임 속에서 몸들은 생존과 노동, 시간의 흐름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간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수많은 삶의 흔적과 시간이 쌓여 있는 길이다.

Flow II 도원



01 《숨, 깃들다》

걸고 또 걷는 사이, 몸은 어느새 다른 숨의 세계로 스며든다.

몸은 생명의 감각으로 깨어난다. 빛과 공기, 숨과 움직임이 몸으로 스며들고, 그렇게 몸은 서서히 자신을 그리고 세계를 인지하기 시작한다. 낯설고 미세한 떨림 속에서 존재는 처음으로 살아 있음을 감각한다.



02 《서로를 돌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조우한다.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하며 새로운 관계와 균형을 만들어낸다. 마치 생명체가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오듯 존재들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관계 맺으며 점점 더 다양한 생명의 풍경으로 확장되어간다. 사랑과 놀이, 감응과 유명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른다.



03 《지금, 여기》

꽃이 피고, 벌레가 깨어나고, 씨앗이 퍼지며 생명들은 서로 얽히고 흐르며 살아간다. 존재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기대고 감응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현실과 꿈, 인간과 자연, 거시와 미시가 서로의 경계를 흐리며 함께 숨 쉬고 살아간다. 멀리서 보면 장엄한 산수화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과 감각, 삶의 리듬이 함께 살아 움직인다.











“그 삶들이 모여 춤이 됐다”... 서로의 ‘도원’을 추는 사람들

차진엽과 국립무용단이 써 내려간 ‘몽유도원무’

뿌연 족자가 열리자 산이 걸어 나온다. 먹이 떨어 빛어낸 능선은 어느새 사람의 몸이 되고, 굽이치는 계곡은 생의 궤적이 된다. 닿을 듯 닿지 않은 곳을 향한 걸음에 굽이치는 생존의 풍경들이 그곳에 스며있다.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성취와 좌절, 순항과 좌초, 현실과 꿈.... 그 많은 반의어가 빛어낸 모순 같은 삶의 계절들이 지나간다. 무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으로 그려낸 수묵화다. 무대 위의 춤은 정답을 수행하는 기계적 몸짓이 아니다. 안무가와 무용수는 긴 대화를 나눴다. “연습이 끝난 어떤 날엔 그 자리에 서서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고 무용수 김미애는 돌아본다. 그날의 연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작품에 관한 토론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이야기였다”고 한다.

“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김미애의 고백)

대화 안에서 누군가는 자기 안의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을, 누군가는 긴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을, 누군가는 스스로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안무가 차진엽은 그 이야기를 통해 다른 빛깔로 빛어진 ‘삶의 조각’들을 봤다. 오래도록 들었고, 침묵의 순간까지 몸으로 기록했다. 그 삶들이 모여 춤이 됐다.

오랜 대화, 먹(墨)이 번지듯 서로에게 스며드는 시간

‘몽유도원무’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2022년 ‘더블발’로 올랐던 초연 때부터 3연을 맞은 지금까지, 차진엽 안무가는 작품에 함께 하는 무용수들과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에게 재연, 삼연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춤의 ‘재현’이 아닌 끝없는 ‘발견’이다. ‘발견의 주체’는 무용수다.

Q. 긴 대화와 소통으로 무용수 개개인의 삶을 춤으로 끌어내는 작업 방식, 어떻게 시작됐나요?

차진엽 : 제게 안무라는 영역은 몸짓으로 표현되지만, 본질은 ‘그 사람’ 자체예요. 무용수가 살아온 삶의 궤적, 경험, 희로애락, 지금은 살아가는 마음이 다 춤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무용수 개인이 너무 궁금해요. 전, 무용수라는 존재와 진짜 사랑에 빠져야 궁금증이 생기고 영감이 와요.

황용천 : 연습실에선 바로 연습을 진행하지 않고 저라는 사람, 안무가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요. 작품에 관한 생각과 정보를 주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려 주구요. 무용단에 와서 외부 안무자님과 이렇게까지 깊은 소통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차진엽 :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도 먹고, 저마다의 삶이 무르익으며 저 역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움을 통해 질문이 계속 생겨나죠. 그렇기에 같은 안무를 훈련하고 반복하기보단 새로운 발견 속에서 빈틈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김미애: 이 작업은 제 내면의 본능을 깨워줬어요. 안무가님이 구성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계산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정이 생겨나요. 고착된 작품을 할 때는 '리바이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몽유도원주'는 매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이번엔 '왜 이렇게 낯설죠?'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뀌는 나를 알아차리는 상태가 너무 재밌고 배울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몸을 직접 구현하는 무용수에게 달라지는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요즘엔 안무가님이 하시는 명언들을 자주 수첩에 받아 적게 되더라고요(웃음).

겨울을 지나 봄으로...무용수들이 통과한 시간

호흡과 호흡이 포개진다. 숨소리로 서로의 살을 맞대며 건네는 온기가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보듬는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서로의 숨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은 생생한 '타인의 삶'을 확인했다. 가만히 손을 대고 몸과 몸으로 시작한 원초적 대화는 어디서든 꺼내지 못한 내면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누군가에게 '성장 드라마'였고, 누군가에게 '기다림'이었다.

Q. 연습을 시작할 때 대화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식이 있나요?

차진엽: 같이 몸을 풀면서 오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해요.

황용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닫혀있던 숨을 터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생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연습실에 와서 무용수들과의 터치를 나누며 다시 숨이 트고 안정감을 느껴요.

차진엽: 서로 돌보고 신뢰하며 '이 공간 안에서는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는 신뢰, 즉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숨을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용수들이 나누는 소통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춤을 대하는 태도이자 내 몸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거기에서부터 정성스러움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박혜지: 사실 무용단 안에서 항상 같은 공간에 있지만,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워요. 그런데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스킨십과 터치를 통해 마음이 통한다는 게 신선하고 자극이 돼요.



Q. 재연으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개인에게 찾아온 변화가 춤으로는 어떻게 투영됐나요?

박혜지: 사실 2년 전 재공연 땐 개인적인 컨디션이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한창 육아로 힘들어서 우울증이 세계 왔어요. 인생에서 가장 다운됐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연 때 이 작품에 합류하며 동그렇게 모여 앉았어요. (김)미애 선생님이 “혜지가 요즘 조금 힘든 일이 있나?” 하면서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는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팍 터져 버렸어요.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에 큰 위로가 됐어요.

차진엽: 서로 눈물 흘리며 마음을 나눴던 순간이 참 소중한거예요.

박혜지: 맞아요. 그땐 삶이 막연하고 끝없는 두려움이 지배해 골방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작품에 해가 되면 어쩌나 하는 부담도 컸고요. 저의 어두운 표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앞머리를 내서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춤을 출 때도 자유롭게 못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는 여섯 살이 됐고, 제 상태도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해방’이에요. 완전히 천국이죠.

김미애: 아이도 ‘몽유도원무’와 함께 성장한 거네요. (웃음)
‘몽유도원무’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황용천: 그때 전 혜지의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늘 밝고, 완벽하게 잘 해내는 친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뎌온 인간적인 사연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어쩌면 이게 ‘몽유도원무’가 이야기하려는 본질 같아요. 나만 힘들어 보이고 멀리서 보면 다들 평온한 것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속이 그 속인 거예요.

김미애: 과거의 전,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받기도 싫어서 늘 제계만 향해 있었죠. 타인에게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서 풀 줄 모르는 경직된 무용수이기도 했죠. 타인에게 따뜻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잠시 떠나기도 했었죠. 초연 때부터 긴 시간 ‘몽유도원무’를 작업하며 방법을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도 내 걸 강요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듣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죠. 예전엔 춤을 출 때도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변화 같아요.

황용천, 박혜지: (김미애는) 예전엔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완벽주의자였고,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있었죠. 전엔 옆에 가면 베일 것 같은 범접할 수 없는 포스가 있었는데, 이젠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무용수(황용천)예요. 후배의 고민을 진심으로 풀어주는 ‘대지의 어머니’ 같은 존재(박혜지)이기도 하고요.



함께 하는 작업...모두의 춤, 모두의 서사

차진엽은 ‘경청하는 사람’이다. 무용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를 곱씹어 60분의 무대로 기워낸다. ‘몽유도원무’는 안견의 그림을 재현하는 무대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완성된 ‘공동의 산수화’인 이유다. 저마다 걷고 있는 인생의 계절과 가슴 한편 숨 쉬는 도원이 하나의 숨으로 얽혀 곱이치는 ‘길의 지도’다.

Q.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차진엽: 무용수들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어요. (김)미애 무용수님은 어릴 때부터 워낙 훌륭하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무대에서도 완벽한 완성형이었어요. 하지만 안무가로서의 저는 이 무용수에게 무언가를 더 시키거나 동작을 엮기보다, 고유한 본연의 아름다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현존’의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전달되니 불안해하지 말라’는 확신이에요. 사실 완성형 무용수일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게 가장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김미애’이기에 가능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관객에게 사유를 안겨주는 힘이죠. 관객도 그걸 느끼길 바랐죠.

김미애: 어제 춤을 추면서 신기한 깨달음이 왔어요. 평생 춤을 춰왔지만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도 몸으로 확 와닿지 않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몽유도원무'를 거치며 춤의 본질은 다 통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물론 무대 위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잘 전달이 될까?' 하는 갈등과 강박은 여전해요. 올해 입단 30년 차가 됐지만, 무대에 올라갈 때의 설렘과 불안은 처음 서는 사람과 똑같거든요. 이번 공연에서도 제가 어떤 상태로 무대에 서게 될지 경험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해요.

황용천: 작품 자체가 나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안무가님이 저를 계속 관찰하고 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무를 수정해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엄청난 인내와 속고의 작업이죠. "여기에선 제 아이가 생각나요," '이 장면은 바람이 생각나요'라고 말하면 그걸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 주세요.

차진엽: 제가 한국 춤을 좋아하는 것은 서양 음악처럼 정해진 악보 안에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는 데에 있어요. 열기설기 펼쳐놓은 그림이나 움직임이라는 재료를 주면 무용수들이 자기 양념과 맛을 더해 요리를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협업이에요. 무용수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태껏 쌓아온 자기 몸의 궤적들을 다시 꺼내 현재의 상태와 마음을 스스로 융합할 때 더 새로워지거든요. 동작마다 무용수 스스로 새롭게 감각하며 '다름의 레이어'가 쌓일 때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찾은 나만의 도원(桃源)

누군가는 겨울을 지나고 있었고, 누군가는 봄을 맞았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길목에서 있었다. 긴 대화 끝에 무용수들은 서로의 계절을 마주했다. 화사한 오늘 뒤엔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완벽한 몸짓 안에 흔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몽유도원무'가 보여주는 도원은 먼 곳의 낙원이 아니다. 서로 다른 계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숨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춤추는 순간, 그곳이 곧 도원이다.

Q. 이 작품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면, 각자에게 나만의 '몽유(夢遊)'란 무엇인가요?"

차진엽: 개인적으로 리셋하고 싶은 혹독한 시기가 있었어요. 욕심을 부리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부끄러워 1~2년을 쉬며 '원형'에

대해 고민했죠. 지금은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맺히도록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우리는 마치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을 거치며 세상을 내 몸처럼 귀하게 대하고 공존하는 태도를 배웠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치열한 생존의 비극이 있듯, 모든 것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해요. 일상에서 상처받고 치열하다가도 연습실에서 환기되고 정확되어 다시 삶으로 투영되는 이 순환이 저에게는 도원입니다.

김미애: 저에겐 '배움' 그 자체예요. 내가 이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상태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용수들을 보며 느끼는 모든 배움이 결국 감사함으로 이어져요. 이젠 '몽유도원무'를 떠나 다른 어떤 춤을 추더라도 이 안에서 얻은 배움의 온기가 다 연결되어 흘러갈 것 같아요. 단단하고 유연하게, 그렇게 계속 저절로 흘러나오는 춤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박혜지: 제게 '몽유'는 '소망'이에요. 사람은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도원을 꿈꾸는 소망을 하나씩 품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소망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저만의 몽유입니다.

황용천: 제가 생각하는 몽유는 '각자의 계절'이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저마다 자기 안의 궤적에 따라 다른 계절을 걷고 있잖아요. 헤지의 계절은 지난번엔 겨울이었지만 이번엔 봄이 된 것처럼요. '몽유도원무'는 각 무용수가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계절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그것들이 무대 위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태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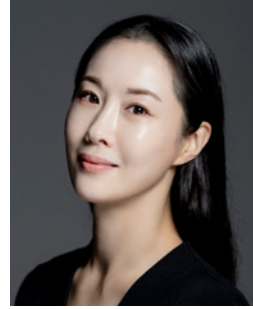
고승희 헤럴드경제 기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씁니다.



김미애



김은이



박지은



황용천



조용진



박혜지



황태인



이도윤



박준우 (객원)

창작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미디어아트	무대감독	홍보물디자인
김종덕	문규철·황선정(oOps.50656)	양정원	2x2(투바이투)
		분장팀	홍보영상
안무·연출	무대디자인	이정은·장혜빈	스튜디오컷
차진엽	이혜진		옥외홍보물
조안무	조명디자인	연습사진	대일특수
김미애	주영석	이다빈	재할트레이닝
안무지도	음향디자인		롤링앤웨이브
이도윤	이상현		
음악감독·작곡	의상디자인		국립무용단 인스타그램
하임	최인숙		instagram.com/ndckorea
거문고·작곡·연주	분장디자인		
심은용	김종한		
생활·피리			
이일우			

국립무용단

1962년에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목표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 단장인 송범을 시작으로 조흥동·최현·국수호·김현자·배정혜·윤성주·김상덕·손인영에 이어 현재 김종덕이 예술감독 겸 단장을 맡고 있다.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레퍼토리로는 전통춤 <코리아 환타지>, 무용극 <춤, 춘향>, 세련된 한국 춤 <묵향> <향연>, 해외 안무가와와의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춤의 가능성을 확장한 <회오리> <시간의 나이> 등이 있으며, 전통을 기반으로 각기 다른 미학의 춤 예술로 한국창작무용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한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립무용단원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춤사위로 관객에게 행복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국립무용단은 현재의 감동이자 미래의 전통이 될 풍성한 레퍼토리와 신작 개발을 위해 쉬 없이 정진하고 있다.

예술감독 겸 단장	수석
김종덕	김미애 정세영 조용진 황태인 박소영
훈련장	부수석
장현수 정현숙 이석준	정길만 정소연 김은이 박혜지 이도윤 선승훈 이승연

단원

김현숙 김현주 김원경 윤성철 박재순 김은영 김영미 문지애 정관영 이세범 최원자 이윤정 박기환
엄은진 김희정 박미영 장윤나 전정아 이민영 조현주 이의영 박지은 황용천 송지영 이재화 이요음
조승열 박준명 박수윤 이태웅 강대현 이재인 김나형 박준엽

국립극장 제작진

극장장 직무대리
김석일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단장
김종덕

책임프로듀서

오지원

프로듀서

박슬기 오수정

총무

변승희

청년행정인턴

민세희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전속단체공연지원팀장

채인영

전속단체지원팀

이종민 박양미 박명빈

물리치료실

송기현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권태연

행정

이용희 송성남 이소라

책임프로듀서

이재금 이서정

마케팅

이아림 김수린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혜진 임지은

티켓마스터

정연정 오윤지 김재경

공연안내

이지윤 정지윤 이인영

유아놀이공간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이정형

행정

김홍석

안전관리

최성훈

무대감독

양정원

기계감독

이정환

기술지원

김진년 신슬기

조명감독/디자인

주영석

프로그램머/오퍼레이터

이희선

팔로우 스팟 오퍼레이터

이준 은명희

기술지원

공미진 최기준 신의정 함승완

음향감독/디자인/오퍼레이터

이상현

기술지원

김은희

영상감독

한기창

기술지원

임영선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정복모

행정

김성식

장치감독

유민석

기술지원

강승구 박일천 강규한 김정규

김항원 김선우 윤하은 황인석

최재림

작화감독

박순용

기술지원

김유리 최다정

소품감독

채수형

기술지원

홍재민 박현이 김민주

장신구감독

김은경

기술지원

이주선

의상감독

김효영

기술지원

조근하 유상현

무대예술지원센터 감독

김재영

기술지원

한형석 김혜선 조가현 오가연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석일

홍보팀장

방강덕

행정

정재우

책임프로듀서

우다슬

홍보팀

정선영 박은영 구해나 이다빈

이주한 안수진 유정수 정일석

노승관

국립극장

인스타그램

ntong_ntong

유튜브

ntong2

블로그

ntok2010

페이스북

NTOKstory

후원



한국산업은행

M
A
S
K

O
F
F

마스크

2026
6.19-21

국립극장
레퍼토리센터

국립극장
레퍼토리센터

국립극장
레퍼토리센터

연출감독 김성민
이채화
안무 김민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WHAT'S NEXT?

세상을 바꿀 NEXT 산업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은행



국립무용단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KOREA(04621)
www.ntok.go.kr